

제 27 호

제 7 부활주일
(예수 승천 축일)

1973. 6. 3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홍보의 날 메시지



정신적 가치의 증진과 홍보

김재덕 주교

경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제7회 세계 홍보의 날에 즈음하여 "정신적 가치의 증진과 홍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문명의, 특히 과학문명의 급진적 발전을 본적은 일찌기 역사를 통하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 않게 오늘과 같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불균형을 이룬 시대도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쉽게 말하는 대로 오늘의 이 놀라운 물질문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문명의 소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반드시 일치된 이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전한 신체에도 건전한 정신이 깰 수 있으며, 심하면 혼이 없는 로봇도 생각할 수 있으며 말입니다.

오늘의 날로 비대해지는 물질문명, 특히 기술문명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정신적 빈곤증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인간 기본가치는 정신기준에서 보다는 물질위주에서 더 잘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간사회는 가장 화려한 문명의 개화속에서도 오히려 극심한 정신적 갈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정복하면서 한치도 못되는 자신 안의 정신세계는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에 퇴폐된 정신적 가치의 증진과 회복을 위해서, 홍보수단을 들고 싶습니다.

과연 시대는 바야흐로 홍보의 우주시대로 접어들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홍보수단의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무섭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속된 오늘의 가치 기준의 혼란을 바로 잡기에,역시 가속의 힘을 지닌 홍보수단을 최대로 이용할 때가 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유념할 것은 아무리 인류 발전을 위한 홍보수단이라 하지만, 그것이 잘못 이용될 때는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무서운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과학의 소산인 원자의 힘이 남용될 때에는 이를 낳은 인류에게 오히려 무서운 핵무기로 둔갑해 올 수 있는 것 처럼, 문명의 이기인 홍보수단도 그것이 남용될 때에는 인류를 해치는 무서운 전염의 매개체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홍보수단이 지니는 그 위대한 힘은 오로지 온 인류의 정신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할 것과, 그러기 위해서 우선 홍보종사원들과 수혜자들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모양으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성서 P. 264)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였다.

□**창계송**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하느님께 노래하라. 고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들하라. 알렐루야.

□**제2독서** (에페소 1:17-23, 성서 P. 438)

하늘 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세말까지 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6:15-20, 성서 P. 120)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 편에 앉으시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로 하여금 홍보수단을 잘 이용하여 정신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위토자이신 주여, 교회 내에서 홍보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해주소서. ◎
3. 진리의 성신이여, 전 세계 모든 홍보관계 종사자들이 인간 가족 내의 일치 증진과 진리의 선포를 위한 사도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

■**맺음 기도** (메스컴을 위한 기도)

스승이신 예수여, 흠숭하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재이시여, 모든 것은 당신의 지혜와 능하심과 선하심에 참여하오니, 그 모든 것을 현대 생활의 향상과 영원한 생명의 준비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만갓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여, 참미받으소서. 당신은 우리 정신에 빛을 주시어, 대자연으로 부터, 영화와 라디오와 텔레비와 음반 등, 시청각의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찬상 보화와 그 지식과 행복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주...◎ 아멘

□**승천 감사송**

□**영성체송** 나는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의 홍보의 존재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앞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란한 홍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가장 훌륭한 문명의 이기인 홍보의 혜택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함으로써, 오늘의 이 가치 기준의 혼란과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만 하겠읍니다.

이렇게 우리는 홍보시대에 주인공으로서 인류 사회의 더 많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노력합니다.

<천주교 전주 교구 교구장>

* 대화의광장

* 잔디밭



보다 나은 세계

안 지 은

오늘은 1973년 5월 18일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오늘을 5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이 세계는 굉장한 발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계, 문명의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비행기로서 세계 각 나라를 짧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신비의 세계이던 달나라까지도 우리 인간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이런 거리는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볼 때 비록 개인 사이의 차이와 국가간의 장벽이 있다 하지만, 사상과 문화적인 다양성안에서 인간이 서로 더 가깝게 인간으로서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 정의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달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매일 가깝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못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직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억압하려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상, 문화, 민족, 피부색이 다르다해서 서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혈투까지 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서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도 가까이서 보면 똑 같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재미있는 일중에서 이런것이 있어요.

제가 만일 한국 어린이와 서양 어린이 한 사람씩을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5까지 세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어린이는 이렇게 할것입니다. (손가락을 안으로

향해 쥘다) 그리고 서양 어린이는 이렇게 할꺼예요. (손가락을 밖을 향해서 쥘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로서는 둘다 5가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서울에서 시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버스 차장은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손 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꼭 타고 싶었지만 손 짓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오지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서있는데 그 버스는 또 다시 서서 나를 기다리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뻐서 뛰어 갔더니 그 버스는 다시 천천히 떠나면서 차장이 웃으면서 저를 보고 다시 열심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내가 아 그 운전수가 참 재미있는 양반이구먼 - 나하고 장난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나도 열심히 뛰고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얼마나 쉽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 하지 말고 표시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알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코가 크거나, 작으나, 또 얼굴 빛갈이 희거나 노랗거나 또는 검더라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한 형제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루 하려면 누구 보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한 나라만 생각 하지 말고 항상 국제적으로 생각하여서 우리 다같이 세계의 평화, 자유 또 사회적 올바름을 위하여 서로 손을 잡고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하여 너와 나, 모두 함께 노력 합시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원광 대학교 주최 외국인 응변 대회 에서 1위 입상>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②3498)

- 4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5일 (화) 외국 문화교실 (독어)
- 7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8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9일 (토) 영어회화(오후5~6시)
- 10일 (일) 음악감상(오후5~6시)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②6094

* 축 부 활 *

동남 샵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전주교 전주 교구 제4지구장 배 정탈 체육대회(오늘 오전 9시, 전주 해성중·고등학교 교정) 친목과 일치를 위한 이 대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2. 전주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발전적 분회
 - (가) 전주 클라라 형제회(전동, 서학동)-매월 끝주일 오후 2시반, 전동에서 모인
 - (나) 전주 방지거 형제회(중앙, 덕진, 복자)-매월 첫주일 오후 2시반, 노송동 성당에서
 - (다) 전주 안토니오 형제회(노송동)-매월 둘째 주일 11시, 노송동 성당에서
3. 방송 안내 주교님 홍보주일 메시지
 - M.B.C-2일 오후 4시10분, 3일 오전 8시
 - K.B.S-3일 오전 10시.
 - S.B.C-3일 오전 7시 40분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4지구 6개 본당 단합 체육 대회
 - ① 선수단은 사도회장님 인솔하에 8시반까지 해성학교 집합
 - ② 교우들은 공식 미사후 전원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 보내실것
2. 성신 강림 축일에 견진 성사
 - ① 교리-내일부터 8일까지 밤 8시 반부터
 - ② 교백성사(전진자와 대부·대모)-금요일 9~12시 토요일 오후 3~6시
 - ③ 대부·대모 등록-6월 8일까지
3. 6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침 미사만 신부님을 피정 기간이라 오후 미사는 없음
 - 지난 주일 봉헌금 32,07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예수 성심 성월 공동 기도 (매일 미사후)
2. 4지구 6개 본당 단합 체육대회 많은 참석하여 즐기시기 바랍니다.
3. 본당 신부님을 위해 수고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6월 유아세례. 7월로 연기
5. 재정보고(4월분)
 - 75,909원(수입-110,188원(지출))=-34,279원
 - 잔액누계 104,935원
 - 지난주 성미 3말 4되, 누계 148말 9되 5홉
 - 지난 주일 봉헌금 12,13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재속 형제회 6월 월례회 없음(7월 첫주일에)
2. 신용조합 월례회 6월 17일로 연기
3. 구역장·반장회의 (6월 6일<수> 오후 8시)
4. 예비신자 교리 (6월 10일부터)
5. 견진 교리 (6월5<화>, 9<토>, 15<금> 오후 8시 참교)
6. 본당 주보 축일 행사 6월 10일로 앞당겨 교우 여러분 협조 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1,66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8시 미사후)
2. 레지오 마리아에 욱의 행사 (다음 주일)
3. 4지구 6개 본당 단합 체육 대회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4. 재정 보고
 - 151,065(총수입)-147,382(총지출)=3,683원
5. 교무금 완납을 위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8,98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견진을 축하합니다 (6월 9일 오후 3시)
 - 주교님 환영식이 있으니 견진성사를 받으실분은 2시 반까지 본당 사무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 조합 임원회 (6월 9일 밤 미사후)
3. 어린이 첫 영성체 (오늘 공식 미사중)
4. 교리 시간 안내
 - 아동교리-매주일 오후 2시반
 - 학생교리-매주 공식미사후, 양석승씨 지도
 - 성인교리-매주 공식미사후, 신부님 지도
 - 지난 주일 봉헌금 5,67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유치원 2층) 구역장과 사도회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6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침 미사만 목요일 10시에 혼배 미사 있습니다.
3. 6월 17일에 견진 성사
 - 6월 11부터 특별 교리 있음
4. 4지구 6개 본당 단합 체육 대회
 -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28,262원, 감사합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 닭·염소·야생동물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6691 (교환)108

취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② 6691 교환85번)

* 역전 보광출판사 인쇄 *